

105개 완주 · 전주 상생발전방안 최종 합의

완주 · 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 ·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 전북도 · 전주시 · 완주군에 수용 건의 예정

완주 · 전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완주 · 전주 통합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완주 · 전주 주민들은 상생발전 방안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통합으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간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들을 오롯이 담아내면서 완주 · 전주 통합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완주 · 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공동대표 나유인 · 성도경, 이하 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위원장 박진상, 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군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양 협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 · 전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열린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양 협의회는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후 차체적으로 회의를 거치는 등 숙고의 시간을 거쳐 회의에 임했다.



완주 · 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와 전주시민협의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군민협의회 사무실에서 양 협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 · 전주 상생발전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이날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총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수용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06개 상생발전방안에는 △통합 인센티브 완주지역 전역 투자(지역개발사업 분야) △완주군민이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12년 이상 유지하고 증액(주민복지 향상 분야) △완주군 의원수 최소 11명 지역구 12년 유지(지방의회 운영 분야) △'농정국'

신규 설치 및 농정국장 완주군 출신 보직(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 진흥 분야) △통합시청사 · 시의회청사 완주 지역 건립(통합시 명칭 · 청사 분야)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 · 기피 시설 이전 불가(지역개발사업 분야) 등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또한 △완주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 유지 △대형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등) 유치 △만경강(하리알대) 드림랜드(테마파크) 건립 △전주 송천동~삼

봉광장(4km) 8차선 확장 △전주 장동 유통물류센터 용지를 확장 이전 △에코시티~삼봉지구 구간 BRT 노선연장 △완주·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내버스 노선 조정 △행정구 4개 설치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을 얻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단, 양 협의회는 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사항 중 △읍·면 이장 수당 확대 △신설 삼봉중학교를 영재 학교로 육성 등 2개 안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향후 행정의 수용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는 이날 확정된 최종합의문을 오는 7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시 · 완주군에 전달하여 수용을 요구할 예정으로,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은 통합 결정 이후 설치될 통합추진공동위원회에 추진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생발전방안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시동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지난달 30일 신성장용복합지식산업센터에서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4개의 프로젝트 그룹이 공식 출범하며 산 · 학 · 관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개 프로젝트에 87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공공 · 제조 △라이

프 △지역 현안 해결 △지역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왔다. 시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국책사업과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1부에서는 전북 · 전주 가상융합산업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출범식과 더불어 선정된 주관기업들의 프로젝트 소개와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진 2부 포럼에서는 가상융합 기술과 AI 융합 사례에 대한 전문 강연이 이어졌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기획초대전 18일까지 연장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현재 진행 중인 2025 기획초대전 '피스오브피스 ·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오는 18일까지 전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로 예정됐던 이번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 전시는 환경예술단체 피스오브피스가 기획한 프로젝트로, 일상 속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은 재활용 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환경과 순환에 대한 창의적 시선을 제시해 왔다.

특히 전시 기간 유아 및 초등 교육기관의 단체 관람이 이어지며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 전시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실제로 현재까지 유치원 34곳과 초등학교 30곳을 포함해 총 173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전시는 오는 7월 18일 금요일까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3층 기획전시실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이며, 단체관람을 원하는 경우 전주시새활용센터 누리집 '기획프로그램 신청' 코너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지역 복지 · 문화예술 · 경제 활성화 '한뫼'

전주시, 국민연금 · 하나은행 하나펀드서비스와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기관이 전주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전주시와 동행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국민연금공단, 하나은행,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달 30일 전라강영 선화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태현 공단 이사장, 이호성 은행장, 김덕순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 · 문화예술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및 지원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정책 협력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 주택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기타 기관의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주시와 국민연금공단, 하나은행,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달 30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태현 공단 이사장, 이호성 은행장, 김덕순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 · 문화예술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는 구상이다.

일례로 하나은행의 경우 협약식에 앞서 지난 24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용품 및 건강지원키트 32세트를 전주시에 전달했으며, 관내 가족돌봄아동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의 도시락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개 기관의 전

문성과 자원을 결합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역 맞춤형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든든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역 균형발전 현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달 30일 김제시의회에서 제29차 월례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과 탄소중립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등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의한 현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탄소중립 · 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및 국비 반영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은 지역 개발을 넘어 생태 복원과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국가 전략의 출발점"이라며 "국비 반영

을 통한 기획부터 설계 · 조성 · 운영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실적 기반 보상제 도입 건의문'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기반 보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이번 건의안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수질 · 공기질 모두 '우수'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근로자복지관)은 '수질'과 실내 '공기질'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관은 최근 한국실내환경협회로부터 'GA(Good Air)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 근로자복지관은 총점의 80% 이상을 총점에 인증을 받았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도 모두 적합한 판정을 받아 수질과 공기질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